전북대 자기소개서

9/7 16:00첨삭 김동현

|  |
| --- |
| 1. 학업생활(대학․원 시절 학업방법 및 학업성취도, 관심 학문 분야, 학술활동 등 기술, 500자 내외)  저는 학업수행을 통해 공공의 문제에 대한 접근법과 해결방식을 이해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이를 위해 공적 합의와 정부 정책의 토대가 되는 민주주의 시스템과 가치 및 철학에 대해 탐구하였습니다. 구체적으로는 행정학은 ‘국정관리론’과 ‘정책학’등, 철학에서는 ‘서양사상의 원천’, ‘고대 그리스의 폴리스와 철학’ 등을, 또한 법학으로 ‘행정학’, ‘행정과 헌법’ 등의 강의를 수강하여 공공 갈등을 바라보는 다양한 관점과 이를 해결하는 절차와 접근법을 학습하였습니다. 저는 이러한 과목들을 수학할 때, 주요 용어들을 위주로 먼저 접근하는 방식을 사용하였습니다. 도서관에서 관련 논문들과 도서들을 읽고 참조하며 강의 자료를 위주로 정의된 용어를 정리하고 암기하여, 핵심이 되는 내용들을 우선적으로 습득하였습니다. 그 이후 그와 관련된 이론들을 탐색하여 찬/반 양측의 주장을 살펴 제 주장을 구축하고 이에 대한 반론을 예측하고 재반박을 만들어보는 연습을 하였습니다. 특히, 법학 관련 과목을 수강 할 땐, 관련 판례들을 읽고 정리하여 법원 판단의 논리를 연마하고자 하였습니다. 또한 예상 시험문제를 만들고 답변을 미리 써보는 연습을 자주 시행하였습니다. 그리고 다른 수강생들과 스터디를 결성하여 정리된 답변을 가지고 쟁점사안들에 대해 토론하며 공부하였습니다. 이러한 방식들이 단번에 습득된 것은 아니지만, 학년을 거듭하며 다듬으면서 마지막 4학년에는 평점 4.14점을 달성했습니다.(554자) |
| 2. 자기계발 및 학업 외 활동(동아리 및 취미활동, 봉사활동, 각종 연수 활동, 직업활동 등 기술, 500자 내외)  저는 대내외 활동을 통해 공적 가치를 함양하고 실천하고자 힘썼습니다. 우선, 대내 활동으로는 행정학과 학생회, 행정학회 소모임 및 헌법학회 동아리 그리고 강독회 등에 참가하였습니다. 학생회에서는 간부 직책을 맡아 행정학과 학생들의 복지 증진을 위해 사업을 기획하고 집행하였습니다. 그리고 학회들에서는 매달 정기 토론회에 꾸준히 참가하고 일 년에 한 번씩 진행되는 자체 학술대회에 나가 그 동안 쌓은 기량을 선배들과 외부인들에게 선보이기도 하였습니다. 또한 철학과 교수님과 함께 학교 지원을 받아 진행한 강독회에 참가하여 플라톤의 <뤼시스>를 탐독하고 수업과 연관해 올바름에 대해 토론하고 배우는 시간을 갖았었습니다. 다음으로 대외활동으로 학생으로서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교육봉사에 집중하였습니다. 군 복무 중에도 안양시 종합사회 복지관에서 중학교 1학년 학생들에게 영어를 가르쳐주었었습니다. 군 전후에는 대한민국 교육봉사단에서 운영하는 중학생 멘토링 프로그램에 참가하여 북서울 중학교에서 중2 학생을 상대로 멘토가 되어 다양한 직업에 종사는 분들과 직업탐색 인터뷰를 진행하기도 하였습니다. 특히 이 때 현직 판사님, 학교폭력담당 경찰관님 그리고 로스쿨 출신 변호사님들을 만나 저의 진로 또한 구체화하는데 도움을 받기도 하였습니다. 그 외에도 북서울 중학교 이름으로 음반 작업에 참여하여 작사와 노래, 소개글을 작성하기도 하였고 대한민국 교육봉사단 블로그 기자와 봉사자 모집 기획 등에 참가해 많은 봉사자들과 기여자들을 만나 공적인 일의 가치와 보람을 느꼈고, 이러한 경험을 바탕으로 쓴 글로 수기 공모전에서 최우수상을 받았습니다.(620자) |

|  |
| --- |
| 3. 지원동기(법학을 전공하려는 이유 등 기술, 500자 내외)  저는 행정학과에 진학하고 수학하면서 공적 가치를 실현하고 공동체에 기여할 수 있는 공직자로 향후 진로를 설정했었습니다. 특히 1학년 겨울방학 때 수원시 직장체험연수에서 시정과 시민들의 민원을 담은 기록물들을 정리하고 분류하는 업무를 수행하면서 지방자치 단체, 풀뿌리에서부터 주민의 권리 보장이 시작되므로 지방행정의 중요성과 업무의 중대함을 생각해보는 계기가 되었고, 나아가 기초자치단체의 공무원이 되어 행정서비스 제공과 주민 복지 향상에 기여하고자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이와 동시에 당시 서울시 무상급식논란 등 지자체의 역할이 커져 역량 강화가 요구되는 상황에서 지자체 공무원의 직무의식과 전문성이 크게 요구되고 있어, 제게 필요한 역량을 고민하였습니다. 이런 와중에 정권이 바뀌고 담뱃세 인상, 각종 재난안전 정책, 누리과정 도입 등 여러 정책들이 논란이 되는 과정을 지켜보면서, 정부가 국민의 협력을 이끌어내고 합의를 타결하기 위해서는 그 근본에 새겨진 가치와 철학이 공고히 되어야 하고 설득의 과정 또한 합리적이어야 한다고 생각하게 되었고 이러한 역량들을 증진하기 위해서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철학을 복수전공하여 제도화된 교육을 받는 것이라 생각하고 실천했습니다. 이후 철학과 강의를 통해서 비판적 사고와 올바른 토론방식을 습득하며 평등과 정의 등 사회의 근간이 되는 가치들을 민주주의의 발원지인 희랍과 프랑스와 현대 한국과 비교해보며 그 차이가 기본권 보장을 위한 버치주의 시스템의 존재 여부에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이에 따라 법학에의 흥미와 필요성에 대해 인식하게 되었습니다. 더구나 ‘정책학’ 과목에서 SSM 규제를 주제로 발표 준비하면서 관련 판례들을 찾아보았고, 국민의 권리구제를 위해 조례 입안 단계에서부터 세심한 준비와 법률가의 전문적 자문이 반드시 수반되어야 한다는 것을 알아차리게 되었습니다. 이에 저는 시민의 권리보장에 힘쓰기 위해 로스쿨에 진학하여 법학을 배움으로써 법률전문성을 갖추도록 노력할 것입니다.(750자) |
| 4. 자신의 장․단점 및 가치관(500자 내외)  저의 좌우명은 “검토 없이 사는 삶은 인간에게 가치 없다.(플라톤, <소크라테스의 변명> 38a)”입니다. 비록 이 문장 자체도 검토되어야 하지만 이는 제가 하는 생각이나 발언이 항상 옳은 것이 아니며 틀릴 수 있으므로 항상 반성하는 자세를 갖춰야 한다고 알려줍니다. 또한 항상 반대의 입장을 고려하며 어느 한 쪽에 치우지지 않는 균형점과 조화를 추구하도록 가르쳐줍니다. 이러한 격언 속에 저는 타인과 교류하며 살아가는 공동체의 구성원이자 시민으로서 타인의 의견을 존중하고 상대방 입장에서 생각해 보도록 노력합니다. 그렇지만 이런 태도가 때로는 냉담하다 혹은 결정이 느리다고 지적받게 합니다. 때로는 제 3자의 시선에서 사안을 바라보고 의견을 제시하면, 온정적이지 못하다라고 느껴지게 만드는 것 같습니다. 또한 결정이 느리다는 지적은 이 또한 주어진 사안에 대해 다양한 관점에서 접근해보려는 사고가 상대방 입장에서는 답답하게 느껴지도록 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때로는 미련하다고 지적받기도 합니다. 타인에게 양보하며 제가 받는 피해를 고스란히 감내하고 견디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이 모든 지적은 신중함, 인내심 있다는 표현으로 바꾸어 말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이런 태도가 내 이해관계만을 고려하지 않고 타인과 공동체의 입장에서도 고려해보는 민주시민의 덕목이라고 생각합니다. 신뢰가 무너져 갈등을 해소하지 못하고 균형점을 찾기 어려워하는 우리 사회에서 자신의 입장만을 고수하지 않고 타인을 배려하는 사람이 필요하다고 여겨지기 때문입니다. 다만 이는 가치의 기준 없이 유불리만 판단해 줏대 없는 박쥐가 아닌 목표를 향해 정진해 나아가는 곰과 같은 자세가 밑바탕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의심이 많다는 지적을 제일 많이 받는데, 이는 근거를 캐묻는 작업을 평소에도 함양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는 발언의 근거가 된 원서를 찾고 실제 발언을 찾아보게 해줍니다. 이를 통해 정보탐색 및 활용 능력과 난해한 텍스트를 이해할 수 있는 이해력 및 독해력과 비판적 사고력을 증진시킬 수 있었습니다. (769자) |